



濁流清論

제8호 2010년 9월 6일(월)

발행인 : 박영무 / 편집 : 편집위원회

<알려드립니다>

◇ 현수막 시위

- 일시 : 매일 11시 45분
- 장소 : 울곡관 1층 로비

방학 기간 중에도 현수막 시위는 계속되었습니다. 새 학기 교수님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방학 기간 중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던 <화요보고대회>를 다음 주부터 재개할 예정입니다.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교수회 대의원 또는 교수회 사무실(구내 2240)로 문의 바랍니다.

◇ 수시로 원고 접수합니다.

보낼 곳은 교수회. 이메일 (makim@ajou.ac.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솔밭에서 : 대답	1
소식	8
교수회 논평	10
자연대 성명서	11
소통(疏通)과 담론(談論)	12
편집위원회 : 강명구, 구형건, 김혜선(편집책임), 이순일, 이재호, 한호	

배경사진은 김효동(미디어학부) 교수작 울곡관 앞 낙랑장송입니다.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대답 :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학내 현황에 대한 진단과 전망

대답

편집위원회

취지: 지난해 박종구 전 차관의 정년보장교수 특별임용 및 부총장 발령으로 시작된 학내 사태가 일 년 반이 지나도록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이사회에서 아주대학교 13대 총장으로 임명한 이수훈 교수는 표절 시비로 한 달을 채 못 넘기고 사퇴하였고, 그에 따라 시작된 총장직무대행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펀드 투자와 관련된 진실성 문제가 불거지는 등, 아주대학의 지난 일 년 반은 굵직굵직한 사건들로 얼룩졌습니다. 지난해 6월 시작된 교수회의 울곡관 현수막 시위는 이번 여름방학 중에도 진행되고 있지만, 학내 사태는 새 학기를 앞두고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탁류청론>은 교내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며 소통과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탁류청론 제8호에서는 지난 일 년 반 이상 지속되어 온 학내 사태를 되돌아보고 바람직한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대답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은 그동안 현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는 않으셨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보직 또는 교수협의 회 활동 경험이 있거나 비교적 최근에 아주대학으로 오신 분들입니다.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자는 <탁류청론>의 정신에 따라 이 기회를 통하여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대답이 학내 사태의 해결을 위한 정답을 제시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아주대학을 사랑하고 보다 나은 대학을 소망하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답자: 김민구 교수 (정보통신대학), 유재석 교수 (공과대학),
이경호 교수 (사회과학대학), 이현환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진행 : 김혜선 교수 (자연과학대학)

참관 : 강명구 교수 (사회과학대학), 이순일 교수 (자연과학대학)

시간 : 2010년 8월 24일 (화) 10:00-12:00

장소 : 교수회 사무실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김혜선) 지난 1년 반 동안 진행된 학내 사태를 어떻게 바라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십 년 전에도 경험을 했지만, 이러한 사태가 오래 가면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벽도 생기고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런 일들이 생겨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박종구 총장직무대행과 교수회의 중간 위치에서 중재를 해보려고 생각했었습니다. 양쪽의 생각에 차이가 조금 밖에 없고 극적인 타결을 볼 수 있는 기회도 두세 번 있었는데, 외적인 요인으로 쉽게 타결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교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명분인데, 그것을 놓치지 않고 여기까지 끌어오는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짐작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변화가 안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재단 측의 책임이 큼니다. 하지만 교수회는 계속 대화를 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화가 해결의 방안입니다. 대화의 물꼬를 트는 열쇠는 재단 측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재단이 조금만 태도를 바꾸면, 상처가 아주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나마 상처가 적은 상태에서 현 상태를 봉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유일한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민구) 바로 전에 기획처장을 했던 입장에서, 양쪽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면 나름대로 일리는 있지만, 양쪽 모두 자기 철학대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단이 대화의 물꼬를 트고 소통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재단에서 교수회를 대화의 상대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대화의 기회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누군가가 양보를 해야만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대치 상황이 풀릴 것입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해결 모색이 필요합니다. 일 년 내내 현수막 붙이고 물러가라고 하면서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은, 사실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입장이 교수회에게는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대화의 물꼬를 트고 싶다면, 계속 물러가라고 주장만 하지 말고, 일단 현수막을 떼고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재단에서 먼저 손을 내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재석)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소통의 문제가 있으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원로 교수들 중에서 교수들과 재단의 의견 양쪽을 모두 듣고 중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수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졸업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내 자식처럼 가르치고, 아주대학교가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학교의 목적이 뭔지 생각해 봐

야 합니다. 대학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가르치는 사람들이 모두 공통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소통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소통이 안 되니까, 서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입니다. 작년 만해도 서로 소통하고자 했습니다. 명분도 있고 모양새도 좋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소통을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학 내 소통에 문제가 있다>

(유재석) 소통을 중재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재단과 교수회를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 즉 총장직무대행 또는 보직 교수들이 아닐까요?

(김혜선) 재단과 교수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총장직무대행이 해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 교수회와 총장직무대행 사이에도 소통의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유재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장직무대행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 교수회와 재단 사이의 중재 역할이지요.

(김민구) 그런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직무대행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경호) 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소통 중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단과 교수회 간의 소통 문제만 얘기했지만, 대학본부(보직교수)와 교수회 간의 소통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보직교수와 소통부재는 아직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있지만, 일반교수들에게는 더 와 닿는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는 더 큰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적으로 해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내부의 소통부재가 지속되면 결국 우리 학교의 발목을 잡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보직교수들 개인을 만나보면, 그럴 생각도 없고 그래선 안 된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행정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요한 문제는 교무회의에서 일단 다뤄지고 소관 부처로 이관 돼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처리되는 방식으로 물 흐르듯이 다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요한 교무회의가 역할을 다 못하거나 굉장히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별로 일을 잘 하려고 해도 문제가 생기고, 물도 일정치 않은 것으로 비춰 집니다. 일반교수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크게 보면 결국은 학교가 정상화되면 자연 치유될 문제긴 하지만, 일반교수들 특히 신입교수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불만들을 가지는 문제입니다. 이런 불만이 오히려 재단에 대한 불만보다 더 커지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김혜선) 이현환 교수님은 비교적 최근에 우리 대학에 오셔서 현재 이런 상황을 접하고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현환) 대학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관한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대학사회 자체는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대학교육 정책과 관련이 있고, 또한 국민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대학교육의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과연 대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선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사회에서는 ‘대학이 사소주의 대상이다’ 라는 생각과, ‘대학은 공공성의 기제(mechanism)다’ 라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의 경우를 보면, 공공성 측면이 강조되기 보다는 사사성(私事性)이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학의 본질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대학은 미래공간이라 생각합니다. 미래세대를 키워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리게끔 하는 것이 대학이 가지고 있는 목표이며, 그런 목표의 기본적인 속성은 공공성에 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세대를 교육하는 미래공간인 대학을 자신의 현실공간으로만 보는 분들이 운영하게 될 때에 공공성보다 사사성이 강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헌법차원에서 대학 교육의 자치(교육의 자치, 대학의 자치)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헌법 조문에 있는데, 우리나라 대학들은 외국대학들과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의 자율성에 대해 논의할 때, 다른 나라는 예컨대 교수회와 학생회 두 그룹 중에서 누가 더 대학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것이냐는 문제를 주로 논의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그게 재단이라는 것입니다. 교수회, 학생회, 재단의 3구성 요소가 있는데, 대학의 자치라는 것을 재단의 자치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상당히 큰 것이 우리 대학들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학의 공공성보다는 사사성을 더 강조하면서 현실적으로 재단의 자율 내지는 자치라는 것을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분석과 해답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늘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대학본질에 대한 고민과 거기에 기초해서 문제 해결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직무대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정상화 체제를 준비하는 일이다>

(김혜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인 총장직무대행 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시작된 총장직무대행체제가 6개월이 다 되도록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말씀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환) 직무대행이든 권한대행이든 대행체제는 임시체제

이고, 임시체제가 갖는 최고의 책무는 정상화를 위한 역할입니다. 정상화 체제를 위한 준비행위, 예를 들어서 절차면 절차, 방법이면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대행체제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규정에 따라서 정상화 체제로 이행하게 하는 것이 대행체제의 기본적인 권한과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직무체제가 진행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직무대행자체는 비정상적인 체제인데 이걸 이렇게 오래 끌어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직무대행체제가 해야 될 기본적인 업무가 정상적 체제로의 이행인데, 그걸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대행체제의 권한 행사가 뭔가 왜곡되어 보입니다. 빨리 정상화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호) 직무대행이 뭘 해야 한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그건 무리입니다. 80년대 최규하 대통령 직무대행의 경우에서 경험해 본 것처럼 실제로 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최규하씨가 나서서 개헌을 하고 헌정을 정상화하길 바랐지만, 그건 구호에 그쳤을 뿐 무리였습니다. 그 사태와 우리 학교의 경우를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만, 결국은 직무대행체제에 뭘 해달라고 바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직무대행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정상체제로의 이행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같은 비정상적인 임시체제에서 직무대행에게 뭘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현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직무대행체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정상 체제로 가는 거라는 거죠. 예컨대,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총장임명의 방법이라든가 절차라든가, 또는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직무대행체제는 정상화 체제로 가기 위한 그러한 부분들을 진행해야 되겠죠.

(이경호)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풀려야 될 문제가 교수회와 재단 사이의 관계 아닌가요?

(이현환) 제 말씀은 그런 일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뭔가 직무대행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소통이라든지 등등의 정상화 체제 이행을 위한 업무들을 직무대행이라는 지위가 해야 되는 데, 지금 안하고 있다는 거죠.

(이경호)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해주면 가장 좋죠. 그런데 지금 전혀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최규하 대행 시절을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대행이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그럴 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뒤에 있는 더 큰 파워를 가진 그룹 간에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직무대행이 하기 싫

어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의 문제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회와 재단 사이의 소통입니다. 지난 일 년 반 동안 안 되던 것이 갑자기 되는 것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노력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부총장의 임기 만료가 내년 2월이므로 직무대행체제도 내년 2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이제부터는 소통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합니다. 여태까지 애쓰고 양보를 많이 하신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벌어진 상황을 보면 교수회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서 현 사태가 내년 2월 이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를 포함하는 일반교수들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소통 중재의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김혜선) 이경호 교수님의 말씀은 직무대행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 라고 하시는 것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현재 직무대행의 존재를 우리가 허수아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빼고서 교수회와 재단과의 문제만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재단과의 문제가 잘 풀어지면 직무대행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이경호) 가장 이상적인 해결 방안은 말씀하신대로 직무대행이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교수회와 재단의 중간에서 양쪽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입장에서 그야말로 공명정대한 양보를 양쪽에서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직무대행인 것은 분명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교수회가 거기에만 매달리고 있으면, 재단은 굉장히 편한 거죠.

(이현환) 문제가 발생한 근원이 사실은 직무대행 당사자이기 때문에 직무대행이 중간에서 중재를 하거나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라고 하면, 맘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직무대행이 문제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수회가 재단과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재단으로부터의 어떤 액션을 얻어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사실 직무대행이 정상적인 학교(총장)체제를 만드는 임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 때문에 지금 정상체제 이행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재단에서 정상화 체제로 이행하기 위한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는 재단도 교수회와의 대립된 관계를 계속 조장해 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재단이 아무것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경호) 이 교수님 말씀대로 재단이 아무것도 안하는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안하던 여러 가지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재석) 재단과 교수회가 지금 현재 소통할 길과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에 재단이 먼저 소통에 나설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면 교수회에서 누가 나서야 하지만, 지금은 교수회 의장부터 대의원까지 교수회 일을 맡으신 분 중에 누구에게도 방법과 길이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는데, 방울을 달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누구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애기를 하는 사람도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재단과 교수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분들 중에 누가 나서야 되는데, 지금은 원로교수님들께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직무대행이 먼저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방법 밖에는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누군가 ‘차 들어 올 때마다 현수막 걸려 있는 것을 보면 기분 나빠서 대화를 하겠냐?’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 ‘그 서슬 퍼런 박정희도 야당하고 뒤에서 다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사장의 리더십이 그것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사장이 진짜 현수막 때문에 기분 나빠서 소통을 안 한다면, 교수회가 현수막을 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화 노력을 해보고, 안 되면 그 때 또 달더라도 말입니다. 서로의 입장만 생각하고 서로의 자존심만 세우려고 하면, 결국은 희생되는 것은 학생들 아닙니까? 누가, 뭔가 조금 양보를 하더라도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년 2월이라도 우리가 정상 총장체제로 가지 않겠습니까? 서로 큰 명분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대와 대화에 임해야 합니다.

(이현환) 사실 공동체를 이루고 살려면 제일 기본적인 것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아이덴티티를 갖는 것입니다. 생각은 다를지라도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 제일 기본적인 공동체의 전제인데, 재단에서는 교수회의 실체를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교수회가 법제화된 공식기구 임에도 불구하고 파트너로 인정하기를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교수회는 학교 행정, 정책에 관해서 늘 이의를 제기하는 지위에 있고 그것이 교수회의 역할인데,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에 관해서 재단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생각은 다르더라도 방법과 절차의 부분에서 서로 동의할 수 있어야만 합의된 결과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것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직무대행 문제도, 왜 무리수를 자주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될 수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서로 생각이 다르거나 개인적인 의지나 욕구가 다르게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구현하는 방법과 절차만큼은 적어도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될 때 우리 대학 공동체가 존재 의미를 가지게 되며, 존재 가치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선) 말씀을 들어보면, 현재의 상황에서 누가 중재를 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원로교수님이 그 역할을 해 주시든지, 안 되면 직무대행이 그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결국은 정치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동의를 안 하시고 끝까지 명분을 지키며 가야된다고 생각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은 것은 아닐까요?

(이헌환) 명분과 정치적인 해결은 서로 모순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민구)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안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해결 시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그런 시도가 있었고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지만, 결국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재단 이사장도 총장선임에 대해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가타부타하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입장을 아직까지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직무대행 임명 후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절차라도 알려야 하지 않느냐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나누었고, 그런 의견들에 대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수들에 대한 불신이 심해서, 어떻게 잘 설득해서 실제 그렇게 하도록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2월 얘기도 했는데, 걱정이 되는 것은 2월에 다시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교수들이 받아들일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타협해서 양보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대로 가면 재단은 나름대로 합리적이라는 방법으로 그러나 일방적일 수도 있는 방법으로 자기 총장을 선임할 것입니다. 그런 절차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예상되어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교수회가 대화의 주체이다>

(이헌환) 잘 몰라서 여쭙는데, 우리 대학에서 총장이 임기를 무사히 마친 예가 있는지요?

(이경호) 서문호 총장과 김효규 총장이 있었습니다.

(이헌환) 우리 대학의 역사에서 총장이 무난히 임기를 잘 마쳤던 예를 모델로 해서 그 방법으로 선임하면 어떨지요? 총장이라는 지위가 대학을 통합하는 지위인데, 가능하면 교내의 대립 관계들을 해소하고 통합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좋은 총장 선임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형태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적절하게 교내의 여러 분쟁이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통합해 낼 수 있는, 예컨대 재단의 마음에만 들거나, 교수회 혹은 학생들의 마음에만 드는 것이 아닌, 구성원 전체가 조금은 마음에 안 들고 불만이 있더라도 어떤 쪽에서든 그것을 다 수렴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총장일 것입니다.

(김민구) 어떻게 보면 형식논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대화 없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절대로 다른 쪽에서 받아들일 리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대화하다가 의견 차이가 있는 가운데 총장선임을 결정하면, 과거에도 못이기는 척하고 인정해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양쪽이 대화를 하며 어떤 것은 못 받겠다고 하다가도 한 쪽에서 묵시적으로 넘어가 주면, 소통의 물꼬를 트는 것이죠. 그런 대화의 물꼬를 누가 틀 것인가 하는 것인데, 지금의 총장직무대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을 본인 스스로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조건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교수회에서 직무대행과 좀 더 진지하게 얘기해서 직무대행이 해야 할 일이 아니냐고 터놓고 얘기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결국 대화 채널을 만들어야 하는데, 대화하다가 결렬될 수도 있겠지만, 결렬되었다고 해서 실패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교수회의 입장은 여러 채널을 통해 이미 수도 없이 얘기 했고 이사장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떤 제스처어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이런 교감이 오가면, 재단도 보지 않을까요?

(이헌환) 최소한 논의의 장 자체는 계속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찬성이든 반대든 논의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단이 교수회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상황에서 논의가 가능하겠는지요?

(김민구) 그렇다고 해도 논의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논의를 못하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과거의 교수협의회는 더군다나 정식 기구가 아니었는데 대화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김혜선) 앞서서 교수회가 파트너로 인정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제 삼자를 내세워서라도 정치적인 타결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여전히 재단이 인정을 안 하더라도 교수회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이헌환) 예전 냉전 시대에도 어떤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의사 전달을 하고 반대편 의사를 확인하는, 중간에서 밀사 역할을 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지는 않더라도, 중간에서 소위 밀사 역할을 해줄 분이 누군가는 있어야 할 것 같고, 적어도 대화의 장 자체를 마련하기 위한 준비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호) 당연히 교수회가 주체가 되어서 해결해야 되겠지만, 교수회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데 저쪽도 상당히 마음이 상해 있고, 또한 자꾸 무리한 조건을 내걸고 있잖아요. 현재의 총장선임안은 지난번 서문호 총장 때 재단이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시행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재단에 유리한 안을 교수회가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렇게까지 재단에 유리한 선임안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런 안을 받지 않고 있다는 거죠. 내용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재단이 틀어져서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임안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안의 차이는 절대 아니고, 결국은 재단이 이 안을 가지고 논의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안 받고 싶은 것이죠. 이 교수님 말씀처럼 당연히 교수회하고 만나야 되는데, 지금은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양쪽과 관련이 있으면서도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원로교수님들 중에서 찾아보면 분명히 가능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교수회가 만일 그런 생각이 있다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재석) 공식적으로는 대행이 그 역할을 해야 되지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비공식적으로라도 이사장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가장 최근에 보직을 했던 분들이 최근까지도 이사장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혜선) 어떤 모습으로든 간에 이 사태가 결말이 나게 되는 것이 2월일 것 같은데, 말씀하신대로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수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경호) 당사자가 나가서 하다 보면 자꾸 싸움이 되고 잘 안 됩니다. 당연히 교수회가 계속 협상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잘 안 된다면, 도움을 받을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김민구) 어쨌든 결렬되는 이유는 뻔하겠지만, 그 다음의 인내심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배수진을 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결렬 이후에도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교수님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 기존에 보직을 했던 분들 또는 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분들이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김혜선) 그런 분들이 교수회의 의견을 대변해 줄 수 있을까요?

(이경호) 의견을 대변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재단을 달래주 기만 해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총장선임안에 대한 이견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의 안은 4년 전에 재단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통보했던 그 안보다 훨씬 더 재단에 유리한 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못 받을 이유는 전혀 없죠.

<위기가 우리에게 곧 기회이다>

(김혜선) 다른 질문입니다만, 재단이 교수회를 달래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는가요?

(이경호) 달래주면 좋겠지만, 그럴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칼자루는 그 쪽이 쥐고 있는데 그 쪽이 그냥 입 닫고 있으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2월에 가서 똑같은 파국이 또 예상되기도 하구요. 재단을 달래야 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교수님들이 많으십니다. 저도 감정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일 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사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 6개월도 안 된다는 점입니다. 교수회가 그 동안 나름대로 굉장히 의로운 투쟁을 벌이셨습니다.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분들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희생이 큰데, 이번 사태는 십 년 전과 달리 교수들 전원이 나서지는 않습니다. 호응이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액션플랜을 개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는 명분에 집착해서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번은 거꾸로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학교가 정상화된다고 해서 그 동안 우리가 문제 삼았던 것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때 가서도 얼마든지 문제를 깨내서, 다시 비난을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추상적이고 무책임한 말인 것 같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무책임하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김혜선) 지금까지 2월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시한을 앞두고서 총장선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넘어야 할 하나의 큰 산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주대학이 나아갈 길에 대해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현실과 수준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주대학의 장래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요?

(김민구) 최근 동료 교수의 이메일을 보셨을 겁니다. 사실 심각한 것은 재정 문제인데, 사립대학에 재단으로부터 돈이 들어오는 것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우학원이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학교는 살림의 여력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다른 재단들도 알려진 바와 달리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 상황에서는 어떻게 갈 것인가? 최소한 건물만 교비로 부담하지 않고 지을 수 있어도 충분한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면 적어도 현재의 상태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등록금만 받아서는 교육비가 부족합니다. 앞으로 지을 건물 몇 개는 재원의 외부 수혈이 필요합니다.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 동안에 특수대학원이나 교수 연구비가 많이 올라가 있지만 또 다른 리소스를 찾아야 합니다. 사립대학 입장에서는 새로운 리소스를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펀드를 불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도를 정상화하도록 준비해서 발 빠르게 가야 됩니다. 재정적인 문제 등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현재는 직무대행체제라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총장이 해결해야 할 일인데, 학교가 이런 상황이라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려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경호)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서 학교에 관한 지표들을 많이 봤는데, 우리 교수들이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십년 간 우리 학교가 급격하게 나빠졌다고 표현하고 실제로 중앙일보 지표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표들을 들여야 보면, 교수에 관한 지표들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좋아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대학이 잘 나가던 시절보다도 더 좋아졌습니다. 중요시하는 몇몇 지표들에 있어서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랭킹이 왜 떨어졌는가? 다른 대학이 더 발전해서일 수도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이 평판도입니다. 사회에서 평가하는 아주대학, 졸업생들이 평가하는 아주대학의 평판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판도만 급격하게 떨어졌고 다른 지표들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다.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새로 들어오는 교수들을 보면, 비교적 다른 어떤 대학보다 잘 뽑습니다. 우리 학교만큼 공정하게 교수를 뽑는 학교는 아직도 없습니다. 학생들도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실 하나는 대우가 몰락한 후 아주대가 나빠졌다고 우리 스스로 이야기하는데, 재단의 기여가 없다고 대학이 꼭 어려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비근한 예를 들면, 97년도 국민대학 사태 때 학생들이 김석원씨 묘를 파내라고 하는 바람에 재단이 묘지를 옮기고 지원을 아주 끊어버렸습니다. 대학 구성원들이 돈이 모자랄 줄 알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2년쯤 지나니까 모자라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모아 2~3년에 건물을 하나씩 지을 수 있었습다. 우리학교 정도 크기의 학교 발전에는 재단이 그렇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학교의 위상은 아직도 나쁘지 않다고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 좋은 인력풀을 가지고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안타깝습니다. 시위하는데 나가서 서 있어야 하고, 심지어는 개인 시간을 다 바치는 분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거기에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자기 연구실에 앉아서 굉장히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불합리한 상황들이 모두 맞물려 있어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우리학교의 전망은 아직도 밝다고 봅니다. 지표상으로는 아직까지는, 특히 인력에 관한 부분은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좋아지고 있습니다.

(유재석) 항상 위기가 기회이니까요. 그런데 고등학교나 기업과 같은 외부의 평가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외부에서는 의대와 약대, 법학전문대학원 등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아주대학이 왜 평판도가 하락하고 있는지 의아해 합니다. 밖으로 보여지는 것에도 신경을 썼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평가받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외적으로 보이는 부

분에서도 빠른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김민구) 사실은 지금까지 아주대학교가 다른 대학보다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건대, 성균관대 등도 교수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못 따라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치고 나갈 때 제대로 치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학교의 철학이 보수적이고 지키는 전략이었기에, 치고 나가는 부분이 부족합니다. 과거의 경험처럼 다시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는 쪽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유재석) 과거의 경쟁 대학이나, 경쟁 상대에도 못 미치던 대학들이 굉장한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으니 상대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입교수들이 학교에 처음 와서 애정을 갖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의 현실은 신입 교수들을 유인할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선임 교수들이 자기 것을 나눠줘서 달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과연 20년, 30년 뒤에도 이 상태로 있으면 아주대학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됩니다. 학교가 조금 더 좋은가 안 좋은가의 문제가 아니고,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또 교수(구성원)들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학교가 발전을 해야 하는 것인데.. 모든 교수가 마음을 모아서 서로 상처 받지 않고 조금씩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나는 대학을 만듭시다>

(김혜선) 대답을 마무리하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환) 대학 자체의 하나의 모토로 좀 신명나는 대학을 만들어 보았으면 합니다. 옛날에 좋았던 시절을 모델로 해서...

(김민구) 우리학교가 언젠가부터 갈등이 생기면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총장을 해도 언제든지 비난을 받게 됩니다. 조금 부족해도 칭찬해 줄 수 있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그런 학교로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바뀌면 충분히 우리학교가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석) 마음이 푸근해져야 그런 칭찬도 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좋은 마음으로 보려면, 서로 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유가 있어야 신나게 일하고 힘이 나는 것입니다. 서로 잘 협력하면 서로 윈-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우리 대학의 아픈 현실을 돌아보며 아울러 바람직한 미래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눠주신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식(새 학기를 맞이하며)

새 학기가 되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로 다시 북적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왕성해야 할 때이지만, 오래된 숙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새 학기가 시작되어 우리의 마

음이 무겁습니다. 방학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몇 개의 이슈로 나누어 정리하여 보고 드립니다.

I. 신입 총장 선출 건

방학 기간 중 교수회와 재단 사이에 중재자를 통한 대화 노력이 있었으나 진척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교수회 나름대로 전향적인 입장을 전달하였으나 재단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재단이 교수회와는 일언반구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총장후보자심사(안)을 작성하여 학교를 경유하여 교수회, 총학생회, 직원회에 전달하고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재단 안은 얼핏 보아도 2009년에 대학사회가 합의 통해 작성하고 재단에 전달한 바 있는 안(이하 2009년 안)과는 달리 이번에만 적용하는 1회성 시안이며 학생회와 노조의 참여는 불허하는 등 차이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2009년 안에서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 3인을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가 이 중에서 총장을 임명하는 방식이었는데 반해, 재단 안에서는 총장후보자심사위원회의 임무가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추천 대상자를 몇 명으로 압

축하지 않고 전체 후보자 각인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에서 끝난다는 점입니다. 요컨대, 이사회가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후보자 전원에 대해 심의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2009년에 교수회 및 재 단체 합의를 만들었던 몇 분 교수님들이 재단 안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후속 조치는 9월 6일(월) 대의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첨부한 2009년 합의안과 이번 재단안을 참고하시고, 해당 대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사회의 구성 단체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번 학기 내에 이 문제가 반드시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데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II. 펀드 및 회계분식 건

주지하다시피, 우리대학에는 학내 구성단체--교수회, 학생회, 직원회, 동창회, 지역대표--의 대표로 구성된 공식기구로 대학평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학평의위원회는 펀드 및 회계분식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감사를 의뢰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평의회는 이 문제를 우리대학 내부에서 해결하는 노력을 좀 더해보자는 일부 위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동안 대학 본부와 내부감사 시행을 위한 절차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학본부는 어제(8월

30일) 평의회의 제안을 거부하고 추가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사안에 대한 감사는 결과에 관계없이 당해 내부감사로 종결함(감사결과에 따른 외부감사 진행 불가)”, 이것이 감사결과 보고서를 평의위원회에 제출하면, 그에 대해 논의하고 외부감사 의뢰 여부를 포함하여 추후 방침을 결정한다는 대학평의위원회 안에 대한 본부의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입니다. 아마 다음 번 대학평의위원회 회의에서 최종입장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III. 박종구 전 차관 교수임용의 불법성에 관한 건

이미 교수님들께 이메일을 통해서 알린 바와 같이, 교수회는 박종구 전 차관의 교수임용 과정이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상당한 근거--과학교육기술부의 유권해석--를 확보하고 이를 재단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묵묵부답이며 교수회가 제시한 회답 시한을 넘긴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교수회는 9월 첫 주 중에 상급 기관에 박종구 전 차관의 교수임용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참고 : V.탄원서)

IV. 기타 현안

가. 지난 10여 년 간 시행되었던 관례에 따라 자연대 교수들이 신입 학장 후보를 선출하여 총장직무대행에게 추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 이사회는 8월 정기 이사회에서 자연대 교수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전 학장의 연임을 결정하였

다고 합니다. 자연대는 9월 2일(수) 교수총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교수회는 그간의 경과를 파악 중에 있으며 조만간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여 교수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이 문제가 자연대에 그

치지 않고 다른 단과대학이 그동안 시행해온 교수들의 학장 후보 선출관례가 더 이상 존중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나. 약대 신설 건으로 우리대학은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필요한 정관 개정을 보류한 바 있으며, 이후 약대 신설 관련 정관은 개정되었으나 재단은 당초 계획되었던 것에 비해 투자 규모를 상당히 축소했다고 합니다. 대학평의회에서 약대 설립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대학 본부는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8월 이사회가 끝났으므로 약대 설립계획은 어떤 형태로든 확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대학평의회는 재단과 학교 본부를 상대로 약대 설립계획과 관련,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들을 짚어볼 예정입니다.

다. 방학 중에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자문과정 중 재단이 그동안 의료원에 돌려주지 않고 있던 17억 원을 상환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3년에 걸쳐 대학평의회가 지속적으로 지적하였던 문제가 이제라도 일단락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라. 단과대학장이 제청한 승진임용 요구가 중앙인사위원회에 의해 거부된 예가 생겼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청이 거부될 수도 있겠으나 규정에 의거하지 않은 임의적인

기준의 설정과 소명 기회 미제공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사 작업이 끝나는 대로 교수회의 입장을 정하고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 교수회는 8월 24일 저녁에 3분의 정년퇴임교수 축하연 모임을 별도로 가졌습니다. 여러 교수님들의 참여 덕분에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학교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러한 모임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으나 어쩔 수 없이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음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회와 대학평의회는 방학 중임에도 나름대로 분주하게 활동하였으나 일부의 성과를 제외하고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여 대단히 송구합니다. 교수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입총장선임 제도가 민주적인 소통을 통해서 확정되고 우리 아주대학의 역사와 미래에 걸 맞는 신입총장선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0년 8월 31일

V. 탄원서

탄원인 : 박영무(아주대학교 교수회 의장 및 대학평의회 의장)

수신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참조 : 사학감사팀장, 대학선진화과장

안건 : 불법·부당한 교수임용의 취소 등 시정명령 하달을 청구하는 탄원서

이주호 장관님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2009년 2월 아주대학교가 박종구 씨를 교육대학원 정년보장 정교수로 임용한 절차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 4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2010년 7월18일자 교육과학기술부 답변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박종구 씨를 아주대 정년보장 교수로 임용한 절차의 불법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1. 아주대는 박종구 씨를 임용하기 전에 신입교수 채용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 총장이 박종구 씨의 임용심사에 필요한 심사위원을 심사 전에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사후에 구두로 승인하였다 합니다.)
3. 박종구 씨의 이력서만을 갖고(다른 후보자는 아예 없었음) 교외에 소재한 행정연구원 원장실에서 총장이 위촉하지 않은 심사위원회가 비공개로 진행한 연구업적의 정량·정성 평가(전공심사)는 엉터리였습니다.
4. 임용심사의 핵심인 면접심사와 공개강의를 생략하였습니다.

아주대 교수회는 2009년 2월부터 박종구 씨의 교수임용절

차기 불법하고 부당했음을 지적하고 임용취소를 주장하였지만 학교 당국은 박종구 씨의 임용절차가 적법했다고 억지를 부려 왔습니다. 최근 아주대 교수회는 채용공고가 없거나 면접심사를 생략한 임용절차가 위법하다는 교과부의 법령해석(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2010년 7월18일자 교육과학기술부 답변)을 학교 당국과 학교법인 대우학원에 제시하고 불법한 교수임용의 취소를 다시 요청하였으나 법인과 학교당국은 묵묵부답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불법한 교수임용이 반교육적이며 학교에 막대한 해를 끼친다는 점은 두 말할 나위조차 없습니다. 게다가 사회 지도층의 불법한 교수임용을 방관하는 조치는 ‘공정한 사회의 실현’에도 역행합니다. 이에 아주대 교수회는 박종구 씨의 임용을 취소하는 시정명령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께서 하달하여 주실 것을 탄원하는 바입니다.

첨부 서류 :

1. 박종구 씨 임용절차의 불법성에 관한 아주대학교 교수회 조사위원회 보고서
2. 2010년 7월 18일자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

교수회 논평(자연대학장 임명과 관련하여)

역사와 전통이 서려있는 사회와 기관에서는 불문율도 성문화된 규칙과 함께 구성원의 행동 준거가 된다. 우리대학에서는 단과대학마다 다양한 형태로 학장후보를 추천하는 불문율이 형성되어 있다. 이는 해당 대학의 상황과 교수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적절한 장치로써 여러 시행착오 끝에 하나의 준거로 정착되었던 것이다.

이번 자연대의 차기 학장 임명 과정에서 우리대학의 소중한 불문율이 무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자연대에서는 과거 10여년에 걸쳐 소속 교수들이 투표로 학장후보를 선출하였고 이를 총장에게 추천해왔다. 총장은 교수들의 뜻을 존중하여 추천된 학장후보를 이사회에 제청하였고 승인을 받았다. 자연대는 올해에도 그간의 관례에 따라 교수들의 투표로 학장후보를 선출하였고 그 결과를 총장직무대행에게 직접 전달하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정작 8월 20일에 있었던 이사회에는 현 학장이 연임하는 것으로 제청이 되어 그대로 의결이 되었다. 현 자연대 학장이 이미 이사회 이전에 학장 연임 거절의사를 총장직무대행에게 통보한 바 있다고 알려진 사실을 감안하면, 이번 사태는 대학사회의 자율성을 해치는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자연대 교수를 대표하여 몇 분이 총장직무대행을 항의 방문한 결과 이번 사태가 자연대만이 아닌 아주대학 전체 단과대학에 해당된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졌다. 직무대행은 “추천된 학장 후보자의 연배와 경력을 고려할 때 학장 직을 수행할 충분한 역량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사회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할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한다. 이사장이 반대했다는 의미로 들린다. 더 나아가 “교수들이 투표를 통해 학장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총장의 학장제청권 및 이사장의 학장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타 단과대학의 학장에게도 투표로 차기 학장후보를 선출하지 않도록 요청할 생각”이라고 하였다. 요컨대, 자연대뿐만 아니라 어느 단과대학이든 교수들이 학장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총장과 이사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사회, 이사장, 총장직무대행이 범한 이번 사태는 관례에 대한 무시이며 대학 교수들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으로 학교의 전통을 무시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또한 모순이다. 현 이사장이 과거 10여 년 간 인정해 왔던 관례를 본인 스스로 부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에 담긴 메시지를 분명하다. 총장에 이어 학장 임명까지 이사장과 이사회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행태가 학장 임명에만 머물 것인가? 대학사회의 자율성은 학문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근간이다. 이것이 무너질 때 대학도 함께 퇴보하게 된다.

총장직무대행은 대학의 자율성과 전통을 수호하기는커녕 이사장의 잘못된 의도를 앞장 서 구현하고자 하니 너무나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는 “직무대행”이라는 현재의 타이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으며, 총장직에 대한 집착이 낳은 한심한 행태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교수회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교수사회에 알리는 한편 향후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것을 밝히며, 이를 위해 보직자들을 포함한 모든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는 바이다.

2010년 9월 2일
아주대학교 교수회

자연대 성명서(파행으로 치달은 자연과학대학장 연임발령에 대해 항의한다)

자연과학대학은 신입학장 임명과 관련하여 소속교수들 전체의 의견을 피력하는 전통을 지켜오고 있다. 특히, 임명동의 투표를 통해 신입학장의 적임여부에 대해 의견을 표현했던 예전과는 달리 2003학년도부터는 교수총의에 따라 학장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지난 8년간 4분의 학장이 이런 방식으로 임명되었기에 자연과학대학 교수들에게 학장후보 추천은 확고히 자리 잡힌 관행으로 인식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다른 단과대학들에서도 교수들의 의견을 모아 학장후보를 추천해오고 있기에, 이런 관행은 예측 가능한 아주대학 운영의 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8월 이사회에서 교수들의 총의는 무시되고, 전임학장 재임이 제정되고 의결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자연과학대학 교수들은 이번 사태의 발생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며, 다음과 같이 파행적 연임발령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전임 학장은 총장직무대행으로부터 연임을 제안 받고, 수락할 뜻이 없으니 제청하지 말도록 요청했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2년의 학장임기를 끝내고 교육과 연구라는 교수의 본연적 역할로 영예스럽게 복귀하고자 하는 전임학장의 의사에 반해, 연임을 제청하고 발령 낸 것은 심히 부당한 일이다. 전임학장은 9월 1일부 인사발령 후에도, 연임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사직서도 이미 제출하였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당사자가 수락할 의사가 없는 학장직 연임 제청과 발령을 강행하여 자연과학대학에 ‘학장부재의 유고사태’를 초래한 것은 무책임한 제청권과 임명권의 남용이다.

둘째, 자연과학대학 교수들의 차기학장후보 추천에 대한 총의를 무시한 까닭이 ‘이사회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점에 있었다는 총장직무대행의 발언은 크나큰 우려를 자아낸다. 모름지기 총장이라면 교수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 이사회를 설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이사회의 의중을 지레 짐작하고 이에 추종하기 위하여 교수들의 총의를 무시한 행태는 현 총장직무대행의 한계와 무능력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혹여 학장후보 추천과정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교수대표와 협의하여 해결할 시간이 두 달이나 있었다. 그러나 공식적인 통로를 통한 해결의 노력을 일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총장직무대행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자연과학대학 교수들의 대표를 배제한 채, 자의적으로 선별한 소수의 사람을 개별 접촉한 사실도 총장직무대행의 교수사회에 대한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교수들이 학장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총장의 학장제청권 및 이사장의 학장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특히 ‘제청권이 침해된 것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했다’는 총장직무대행의 발언은, 이번 일의 발생이 우연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교수들의 학장후보 추천이라는 관행은 본교의 역사적 경험들이 빚어낸 지혜의 산물이다. 이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대학발전에 교수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성공적인 운영모델임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이런 좋은 전통을 허물고자 하는 것이 이사장인지 아니면 총장직무대행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타 단과대학의 학장에게도 투표로 차기 학장후보를 선출하지 않도록 요청할 생각’이라는 총장직무대행의 발언으로부터는 대학운영에 대한 교수들의 의사 개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저의가 읽힌다. 위의 ‘제청권이 침해된 것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했다’는 발언과 더불어 ‘새로운 학장후보 선출이 필요한 경우’에도 ‘전체 자연대 교수를 대표하는 교수회를 통해 결집된 의사를 존중’해달라는 요청을 끝내 묵살한 사실로부터는 총장직무대행의 교수사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확인된다.

전임학장이 공언한 바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자연대는 학기 첫 날부터 ‘학장부재의 유고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총장직무대행은 이런 엄중한 사태를 ‘학장대리를 임명’하는 미봉책으로 모면하려하지 말기 바란다. 이번 사태는 단과대학 교수들의 총의를 모아 학장후보를 추천하는 우리대학의 좋은 전통이 보존되는 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 판단된다. 파행적 학장임명의 함의를 반추하며 현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교수사회의 의혹이 가득한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수사회와 교수대표를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하고 의견을 나누는 데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교수들이 어떤 학장과 더불어 단과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기를 원하는지, 당사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자연과학대학을 위해서는 다음 이사회에서 새로운 학장이 임명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자연과학대학 교수들은 이에 필요한 과정을 현명하게 밟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자연과학대학 교수회



소통(疏通)과 담론(談論)

편집위원회

지난 호에 실린 조중열 교수의 글은 현 학내 사태 해결책의 일환으로서 아주대 국립화 방안을 논한 것이었습니다. 논의의 향방을 일거에 틀어버린 짧지만 강력한 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으로서는 참으로 신경 쓰이는 글 일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언뜻 보면 그럴 듯 해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내 맘대로'인 총장선출 방식에 대한 의견 검토 공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글 하나로 한 발자국 내디딘 것입니다. 불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 써주신 조중열 교수께 여러 분의 성원을 대신 전하여 드립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굳이 투표장으로 향하는 개인은 이해하기 힘든 존재입니다. 수 백 만중의 한 표인 내 의사가 무슨 효력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를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투표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투표율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논리적인 합리성 말고 그 다른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정일 수도 있고 의무감 일 수도 있고 아니면 허위의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쓰기보다는 읽기를 (혹은 읽기보다는 읽지 않기를 ?) 즐기시는 다수에도 불구하고 <탁류청론>이 호수를 늘려가는 저력의 비밀을 말씀 드렸습니다. 합리적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투표하는 마음을 가지신 여러 분의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호에서 문제제기 하였던 바, 교수사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책 이슈를 다루고자 합니다. 다음 번 주제는 교수 승진 심사 건입니다. 핵심은 승진자격에 관한 단과대학의 자율적 판단을 중앙인사 위원회가 얼마만큼 인정할 것인가입니다. 단순한 규정 적용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해석이 가능한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원고 청하면 물리치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집단지성이 뭐 별건가요? 십시일반(十匙一飯)의 동행이지요. 행동하지 않는 권리는 법전 위에서 잠들고, 외치지 않는 소리는 누가 물어가며 들어주지 않습니다. 꾸뻑, 편집위원회 일동 드림.

재단과 교과부는 박종구 전 차관의 불법적인 교수임용을 취소하라!

아주대학교 교수회

법인 이사회는 교수사회에서 불신임된 윤원석 이사장을 해임하라!

아주대학교 교수회

이사회는 책임 총장제와 선임 절차를 확정하고 즉각 시행하라!

아주대학교 교수회